

전북현대 29일 상무전 이겨 팬 위로한다

최근 심판매수 불미스러운 일로 준 실망 승리로 보답 각오

최정에 선수들로 구성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주상무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최근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전북은 우선 최선을 다한 경기와 승리로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는 마음이다.

지난 24일 전북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1만 3,000여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준 팬들 덕분에 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 할 수 있었다. 전북은 이번에 상대하는 상주에게 전 통적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K리그 통산 6승 2무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24일 경기를 주전 선수들 위주로 치렀지만 29일 경기 역시 최정에 선수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최근 멀티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는 루이스와 레오나르도를 비롯해 로페즈 등 브라질 삼총사를 앞세워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홈 3경기 연속으로 외국인선수 캐릭터 양말 선물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은 루이스 파틸루에 이어 로페즈 양말을 각 게이츠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선물한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주상무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군산망해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29일 개최

2전국 자전거 동호인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2016 군산망해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오는 29일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군산시 금강자전거 길(나포면 망해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군산산악자전거연합회(회장 나기택)에서 주최·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전국규모 선수 및 임원 등 1,000여명이 군산을 방문해 경승 같고 뛰어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약 8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속적인 대회 유치활동과 스포츠관광산업 대응전략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지역 주말 생활체육대회 풍성

오는 28일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운 체육경기가 익산 곳곳에서 열린다.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익산시비독협회(회장 김삼배) 주관으로 제15회 익산시장애 시민바둑대회가 개최된다.

'응답하라 1988' 열풍과 인공지능 알파고 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대결로 그 어느 때보다 바둑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번 경기에는 6개 부문 12개부 250여명이 참여해 승패를 가린다. 특히 유명 프로기사 이우진 초단을 초청해 명사가남대국과 지도대면기가 이벤트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28일부터 6월6일까지 제6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한국여자야구연맹(회장 정진주)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가장 많은 40개팀 800여명의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산 야구장과 보조경기장 등 3개 구장에서 이들 동안 예선전을 거쳐 승자팀이 6월 4일에 16강을 치르고 5일에는 8강과 4강을 치르며 6일에는 결승전과 폐막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익산시와 작년 상호발전협력 협약을 체결한 kt wiz 프로야구 선수단은 올해부터 3년간 홈경기를 지역에서 갖는다.

프로야구 불모지인 전북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야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행하고 나아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NBA 클리블랜드 토론토에 38점차 대승...결승진출 1승 남아

116-78로 이겨 러브-어빙 1쿼터부터 맹활약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안방에서 토론토를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 끝에 무려 38점차 대승을 거두고 결승전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겼다.

클리블랜드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퀵론 론즈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토론토 랩터스와의 5차전 경기에서 116-78로 승리했다.

클리블랜드는 홈에서 치러진 1, 2차전을 모두 가져가며 이번 플레이오프 10연승과 함께 손쉽게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는 듯했다. 하지만 토론토 워싱턴에서 2경기 연속 패하며 시리즈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2승2패로 동률을 이룬 상황에서 5차전 승부는 양팀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이번 시리즈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의외로 심하게 끝났다.

클리블랜드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며 여유 있게 승리를 챙겼다.

2년 연속 결승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 두게 됐다.

포스트시즌 들어 안방에서 아직 패한 적이 없는 클리블랜드는 3, 4차전에서 부진했던 케빈 러브와 카이리 어빙이 1쿼터부터 날아오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다.

볼이 1쿼터에만 23점을 합작하며 클리블랜드는 37-19로 앞서 나갔다. 2쿼터에도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하지 않은 클리블랜드는 코트를 밝은 선수들이 고루 득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토론토의 주득점원인 더마 드

로잔과 카일 라우리를 철저히 봉쇄하며 상대를 전반에 34점으로 묶고 리드폭을 더욱 벌였다.

후반 들어 러브론 제임스러브어빙 삼각편대가 팀 공격을 주도했다. 이들 셋은 3쿼터 시작과 함께 7분여 동안 무려 25점을 연속으로 책임졌다. 그 사이 점수는 90-56으로 벌어지며 승부는 클리블랜드로 완전히 기울었다.

40점차로 시작한 4쿼터는 주전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벤치 멤버들만 경기로 진행됐다.

양팀 모두 6차전을 준비했다.

제임스는 23점 6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변함 없는 활약을 펼쳤다. 러브는 단 2분여를 뛰면서 3점슛 3개 포함 25점으로 지난 3, 4차전 부진을 떨쳤다.

어빙도 체력안배를 하면서도 23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토론토는 클리블랜드의 유기적이고 끈끈한 수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팀 공격을 이끌 드로진(14점 3리바운드)과 라우리(13점 6어시스트)가 27점을 합작하는데 그쳤다. 두 선수 외에 두 자릿 득점을 올린 선수가 없었다.

3점슛은 17개를 던져 단 3개 성공에 불과했고, 필드골 성공률이 40%(39.1%)를 밑돌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했다.

동부 콘퍼런스 결승 6차전은 28일 토론토의 홈구장인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펼쳐진다.

/김민근기자



클리블랜드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퀵론 론즈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토론토 랩터스와의 5차전 경기에서 116-78로 승리했다.

전북현대 심판매수 사건 상벌위 개최예정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북현대의 심판매수 사건에 대해 법원 최종판결 이전에 연맹 상벌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이미 전북구단이 사실 인정을 했고 사건경위서 및 관련자료 수집이 대부분 완료돼 상벌위 개최가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맹이 상벌위를 신속하게 진행 하려는 이유는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맹의 징계수위가 지난 경남FC 징계에 비해 높아질지 낮아질지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